

상해해외연합투자주식유한회사 사장이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협력 협약서’를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본 협약서는 중국수출입은행이 용자를 지원하고 상해해외연합투자주식유한회사가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발틱 해 개발 프로젝트로서 관광단지 및 비즈니스단지와 주거지를 합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본

건은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최대의 전략적 협력프로젝트이며 중국 역사상 최대 해외투자 프로젝트이다.

본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협약서는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뿐만이 아니고 전략적 관계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 성 진】

◆ EFIC, 터키 이스탄불시 앞 자국산 고속페리선 수출지원을 위한 보증 지원

호주 수출신용기관인 EFIC는 지난 5월 1일 터키의 최대도시인 이스탄불시 앞 약 1억 7백만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였다. 동 금융패키지는 이스탄불시 (Istanbul Metropolitan Municipality)가 호주의 Austal사(Austal Ships Pty Ltd)로부터 두 척의 고속 쌍동선(catamarans)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금융패키지는 EFIC가 독일의 수출신용기관인 KfW 및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과 협조융자 하에 100% 금융지원하게 되는 데, EFIC는 수출계약금액의 80%에 해당하는 KfW의 대출에 대해 수출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EFIC의 보증은 대주인 KfW의 상업 및 정치적 위험을 담보하게 되며 계약금액의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KfW의 보증으로 유럽개발은행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 금융패키지의 추진으로 EFIC는 KfW와 유럽투자은행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이스탄불시의 페리운항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IDO(Istanbul Deniz Otobusleri)는 매년 1,200만 명의 승객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페리 운영회사중 하나이다.

【박 해 선】

◆ KfW, 최초 말레이시아 현지통화채권 발행

KfW는 5월 3일 말레이시아에서 5억 링기트(약 1억 3,800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하였다. 이는 KfW가 말레이시아 현지통화인 링기트로 채권을 발행한 최초의 경우로, 주간사 은행은 ABN Amro가 맡았다. 조달 조건은 7년 만기, 고정금리 4.6%이다.

KfW가 말레이시아 현지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게 된 배경으로는 최근 몇 년간 보험사나 연금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동 국가에 크게 유입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투자자들은 현지통화로 말레이시아 정부채에 비해 비상위험이 낮은 KfW의 동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